

# 대학 개강마저 미룬 코로나... 교육부, 4주 연기 권고

중서 입국 유학생 각 대학에 통보 후베이성 방문 학생·직원 자가격리 중 수업감축 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가 각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춘절을 맞아 중국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 중 9582명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대학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전체 대학에 개강 여부에 대해 공식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총장 20명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5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강 연기 권고 중국 내 확진 환자가 후베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 접촉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사관리 방안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로 인한 2차 감염 등 제한적 전파가 발생하는 등 감염증 유행 지속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3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1월21일~2월3일)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9582명으로 이미 국내 대학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1일~1월 30일까지는 중국 국적 유학생, 1월 31일 이후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모

〈중 출신 유학생 2000명 이상 대학〉

구분	총계	중국
경희대	6,095	3,839
성균관대	5,393	3,330
중앙대	4,350	3,199
고려대	4,783	2,508
한양대	3,570	2,424
국민대	2,896	2,059

/종로학원하늘교육원

든 유학생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소재지 등 현황 파악을 실시하도록 했다.

춘절을 맞아 중국에 입국했던 유학생들도 3월 개강을 앞두고 속속 입국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중국 국적 유학생은 7만1067명으로 전체 유학생 16만165명의 절반 수준(44.4%)에 육박한다.

또 256개 대학에서 지난 1월 28일 현

재 최근 14일 이내(1월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 포함)을 방문하고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 수는 총 1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지별 우한 방문자 94명, 우한 외 후베이성 방문자는 23명이다. 신분별로 유학생은 48명, 한국학생 56명, 교직원은 13명이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의 이유로 실제 방문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유학생이 많은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신종코로나 대응의 애로사항과 대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고, 수업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신·편입학 휴학 등에 대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강일 변경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

라 학칙 등으로 규정돼 있고, 대학이 자율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원격수업이나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2학기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필요시 학사일정을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고 수업결손은 보강, 원격수업, 과제물 대체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개강 연기나 학사일정 감축을 해도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우한 지역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이 대학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허가해줄도록 권고했다. 졸업식이나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를 자제하거나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재차 당부했고,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등 관리 조치도 주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부산대 신임총장 후보 1순위에 차정인 교수

교육부에 추천, 임명 절차 진행 예정 "정부에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요구"

부산대학교 신임 총장임용후보자에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60,사진) 교수가 1순위로 당선됐다.

5일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한성 교수)는 전날(4일) 교내 경압체육관에서 교수·직원·교과 등 총 1880명의 선거인 중 1627명(투표율 86.5%)이 참가한 가운데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는 총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1차 투표에서 1~3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전체 투표자의 53.68%를 획득, 28.63%를 득표한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최병호 교수



이번 선거는 특히 처음으로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방식이 현장 투표와 동시에 실시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차 교수는 당선 소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역 명문대학들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강력하고도 대승적인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정책 시행을 요구해 대학발전

을 앞서며 1순위로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2차 투표에 올랐던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진성호 교수는 17.68%를 득표했다.

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고려대 경영대, 4회 연속 AACSB 인증

학부, 대학원 전과정 기관 인증 예일대, 보스턴대 등 인증 보유

고려대학교는 경영대학이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가 수여하는 경영교육인증을 4회 연속 5년 인증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학부와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에 걸쳐 AACSB 경영교육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0년과 2015년 인증을 갱신하는데 성공했다.

AACSB는 미국의 주요 대학 학장들이 1916년 설립한 비영리기관이다. 명문 경영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표준을 제정해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제인증 수여하고 있다.

예일대, 컬럼비아대, 보스턴대, UCLA 등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이 이인



고려대학교

증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 56개국 862개교가 AACSB 인증을 보유 중이다.

인증 연장 심사는 지난해 11월10일~12일 AACSB 실사단이 고려대 경영대를 방문해 교수진, 학점, 커리큘럼, 연구업적 등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해 이뤄졌다. 심사단은 "2020학년도부터 경

영학과 내 신설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려대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대 교수진과 학생 커리큘럼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이뤄진 스타트업 연구원 운영 성과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SK와 함께 하는 'Business for Society' 프로젝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욱 경영대학장은 "국내에서 학부,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에 걸쳐 4회 연속 AACSB 인증을 받은 곳은 고려대 경영대가 유일하다"며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 육군은 예비전력 강화... 국방부는 뒷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예비군 관련 일정이 4월 이후로 늦춰졌지만, 육군은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을 정책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육군이 '평시복무예비군(최대 200일 복무예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있다"면서 "지역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 관련 군무원 등 전문인력을 선발해 제도 도입을 위한 전방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시복무예비군은 현재 연 15일 정도를 군부대에 복무하는 비상근간부예비군을 확대한 제도로, 미국을 비롯해 군사선진국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확보와 탄력적 병력구조 개선을 위해 이미 도입을 해왔다.

이들은 예비역간부 신분이기에 평시에는 전시동원준비와 동원훈련 준비업무를 군무원과 함께하고, 전시에는 전투원으로서 전투 및 제반 임부에 투입된다. 군무원들은 국제법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투에 투입할 수 없다.

실제로 한 비상근간부예비군은 "최근 육군의 평시복무예비군 실무자로부터 비상근복무 시 필요한 지원 및 제도의 개선점 등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면서 "육군본부 동원참모부나 동원전력사령부가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의 한 고위층 인사는 "인구감소 등 병력자원 감소는 자연스레 예비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비역간부들을 중심으로 평시에도 복무케 하는 평시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세종대 캠퍼스타운 '세종 창업가의 날' 개최

## 세종대 출신 사장님 한자리에 '창업가의 날'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은 지난 1월 28일 대양 AI 센터 B107에서 '세종 창업가의 날'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캠퍼스타운의 2020년 비전을 공유하고 창업 희망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인사말 및 축사 ▲비전 선포식 ▲멘토 위촉식 ▲멘토링 및 케이

터링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는 김영욱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장이, 축사는 임종화 세종대 부총장과 백성욱 산학협력단장이 맡았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스타트업 지원공간과 공모사업 소개를 통해 캠퍼스타운의 향후 진행 방향과 목표, 비전을 공유했다. 멘토링 및 케이터링에는 총 11명의 멘토들과 캠퍼스타운의 입주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 서울교육청, 정기전보 '상피제' 대상 2586명

서울시교육청은 5일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0년 3월1일자 유·초·중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105명, 공립 초등학교 교사 4290명, 중등 교사 2586명 등 총 6981명이다. 여기에 포함된 중학교 교사 1421명, 고등학교 교사 1165명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교원 상피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등학교 학생 배치시 교사 자녀인 학생 84명에 대해 상피제를 적용해 부모와 다른 학교로 배정했고, 이번 전보에도 반영해 발표했다. 각 학교는 전보를 기준으로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를 파악해 오는 10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다. /한용수 기자